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한공협 2023 한마당 대잔치(17일-19일)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11명이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 공동체학교들이 이번 주간에 2학기를 개학합니다.
꾸러기학교: 24일(목) 어린이학교: 24일(목) 멋쟁이학교: 27일(일)
- 지역별사랑방 방모임은 9월 첫째 주일(3일) 주간부터 시작합니다.
방모임과 지킴이 준비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감사)
조향민 · 최신혜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34 호

2023년 8월 2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사랑, 삶을 살게 하는 힘

벌써 8월 중순을 지납니다. 휴가철이 끝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이 다가왔네요. 올 여름은 폭염과 낮설게 느껴지는 폭우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하반기 준비를 하는 시점에 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쉬는 기간 동안 일에 대한 강연을 들을 기회가 몇 차례 있어서, 그때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때 위기는 여러 분야와 다양한 의미를 포함 할 수 있기에, 사람의 관점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따라서 피부로 와 닿는 위기는 각자 다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각자가 일을 하고 있기에, 그리고 일은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요소이기에, 일이 위기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일의 중요성은 수차례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일은, 생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자기표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생에서 일하는 데 들이는 시간, 혹은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는 시간의 양을 따져본다면 개인의 일생에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일이 위기에 놓여있다고 여기는가? 하면 현대 사회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측면에서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일을 기피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일을 싫어하게 만드는 원인을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체제는, 본질상 개인 간의 끝없는 경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무한경쟁의 구도는 사람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과도하게 수고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소진시키고, 만성적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마침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일을 능동적으로 하면 일이고 수동적으로 하면 노동이라고 했을 때, 의미의 상실은 일을 단순한 노동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현대인들이 정서적으로 소진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일하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수고로움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그것은 수고로움이 아니라 애정과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주변을 살펴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해줄 것이 없거나, 또 해줄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더 잘해드릴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일과 수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도 엄청 중요하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습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말로 다할 수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수고로움과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힘있게 살아갑시다.

한주간의 말씀

“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
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
<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86 546 / 323

기도 : 하경임 집사

성경 : 에스라 1장 1-16절

제목 : 예루살렘 귀환 명령. 하나님의 역사

1. 내용: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다. (What)

<문단구분>

1~4절 <고레스의 칙령>

5~11절 <유다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2. 의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섭리하신다. (Why)

1) 이사야를 통해서 약 160년 전에 이미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하셨다.

2) 예레미야를 통해서 귀환을 예언하셨다.

3) 희생과 고난이 예상되는 귀환 길에 백성들 일부만 참여하였다.

3. 적용: 하나님의 일 하심을 소망 가운데 믿자. (How)

1) 약속이 더디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2)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자.

3) 고난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

할 수 있는 것

심심한 저의 삶 속에서 그나마 역동적인 순간이 있다면 바로 운동하는 시간입니다. 원래라면 헬스장에 가야 하지만 거리가 너무 먼 관계로 홈트레이닝으로 진행합니다. 팔굽혀펴기 20개, 턱걸이 12개, 스쿼트 25개를 묶어서 한 세트로, 총 5~8세트를 진행합니다. 그 뒤 하천가로 나가 20~30분 정도 뒹니다. 이후 집에 돌아와 찬물로 샤워하고 방에서 에어컨을 켜주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이걸 한 주에 평균적으로 4회 정도 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지금 제 몸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8살에 허리 쪽 4번 디스크가 돌출되어 가끔 신경을 누르고, 양 무릎 연골은 거의 다 닳아 50살이 되기 전에 지팡이를 짚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미래 일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미련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빠져나온 디스크나 닳아버린 연골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분명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허리 근육을 키워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지 못하도록 잡아줄 수 있고, 허벅지 근육을 단련해 걸을 때 연골에 무리가 덜 가도록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항상 인지하고 생각하며 바꿔 나가도록 노력한다면, 언젠간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운동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지만, 가끔 한계치를 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서 미친 듯이 달립니다. 이렇게 달리고 난 뒤엔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달린 후에는 꽤 기분이 좋습니다.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저도 오늘의 운동을 하러 나가야겠습니다.

젊은이사랑방 권영우 청년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히브리서 13 : 20-21
37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태복음 12 : 31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539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창세기 39 : 20-23
580

설교자
새싹사랑방

“ 일터에서 열매 맺기 ” 권재만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36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주님의 사랑이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용필 이승호/ 봉헌위원 : 최신혜/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터 속에서 열매 맺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일터에서 열매 맺기

하나님께서 돌봐준 사람 요셉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자신의 일터 어디서든 인정받았으며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터에서 자신의 지위나 위신과 상관없이 언제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으며 유혹 앞에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한 요셉 요셉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 해 주셨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일이 잘 안 돼 보여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각자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버는 것 이상입니다. 일을 통해 얻어야 하는 열매는 관계 속에서 얻는 정의, 평화, 기쁨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교제하며 그분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한대훈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가는 걸까요? 방학은 끝이 보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꾸러기들에게 엽서를 보냈습니다. 방학 동안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개학이 다가온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며칠 후 그리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 웃음이 납니다. 대단한 친구들이지요? 생각만 해도 기쁨을 주니 말입니다.

방학 동안 교사들은 몇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가오는 9월과 2학기 교육 계획을 하고 10월에 갈 졸업여행도 미리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인사동 쌈지길 계단 갤러리에서 개인전시를 하고 있는 이지음 어머니, 최명지 작가님의 그림을 보러 갔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을 직접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청소를 할 겁니다. 오늘은 꾸러기 부모님들이 내일은 교사들이 구석구석 청소를 하며 꾸러기들을 반길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합니다. 꾸러기들이 방학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별 탈은 없었는지, 어떤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을지! 개봉박두 8월 24일!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다들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시나요? 다니는 한 달 간 제주생활 잘하고 양주 온 지 일주일쯤 됐네요.^^ 친구 초대 숙제가 다음 주에 몰려 하은이랑 소리가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구요. 오늘은 새나, 예나가 방학에 처음으로 놀러 와서 넷이 아주 신났네요. 다니, 리야는 제주에서 여행지는 많이 안 다니고 동네에서 저희 스타일대로 축구, 국궁, 테니스, 서핑, 스노클링, 낚시, 문어 잡이를 즐기다 왔습니다. 요즘 사촌들 덕분에 축구에 푹 빠져 있네요. 어린이학교에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 지난 주말에 학교가 너무

그리워 학교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풀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빨리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개학이 며칠 남지 않은지라 여름방학 동안 어린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서 우리 반 어머니들께 여쭙봤더니 다양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 선교여행 가느라 먼저 방학을 시작한 다니, 리야 어머니의 글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친구들은 수영장과 계곡으로, 아웃리치와 여름성경학교, 친척 댁 방문하기, 도서관이나 가까운 곳 나들이하기 등으로 알차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들 틈틈이 숙제를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울러 지난 8월 10일에 검정고시를 본 6학년들의 소감도 들어보았습니다.

아침에 엄마들과 인사하고 들어갈 때 많이 떨렸다. 일반학교에 처음 가서 더 그랬다. 교실 찾을 때 많이 헤맸고, 생각보다 시험지가 많이 커서 신기하면서도 놀라웠다. 내 자리가 감독관 님 바로 앞이라서 부담스러웠다. 문제를 풀 땐 생각보다 뭔가 좀 어려웠고, 다 보고 나니 계속 꽃혀 있던 게 사라져서 시원하고 자유롭다. / 권민상

처음으로 국가고시를 봐서 떨리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쉬워서 다행이었고, 문제가 진짜 재밌었다. (추신) 5학년들아, 시간 많~이 남는다. 걱정 말고 내 말 믿어. / 강현우

24일 목요일에 어린이학교 2학기가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학기가 되기를 바라며, 응원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 또한 개학이 앞으로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무덥던 방학의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나눠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멋쟁이들은 멋진 여행을 다녀오거나, 검정고시 등 진땀나게 공부를 하거나, 한껏 놀기도 하면서 방학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방학이 시작하던 때를 기억하며, 세웠던 계획이나 다짐을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는 지리산 종주여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체력의 보충도 해오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2023 한공협 한마당 대잔치에 다녀왔다

'위기의 시대, 공동체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포항시에 있는 양포로 2박 3일 다녀왔다. 갑자기 가게 된 여정이라 별로 기대도 없이 떠난 여정이었다.

여러 가지 작은 주제들로 현실에 대한 이야기와 그에 대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왔다. 노동과 기도, 자녀 교육과 주택, 중독과 사회 정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자녀들의 교육법도 다르고 평균 연령도 엄청 다른 공동체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삶에 그려내고 있었다.

그중에 거의가 20대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눈에 띄었다. 생활과 삶, 그리고 사회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일단 함께 살기로 해 봤다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놀라웠다. 나는 저 나이에 저렇게 고민했나?

사실 나도 20대에 사랑방 교회에 왔었다. 하지만 고민하지 않았고, 그냥 좋기만 했던 기억이 난다. 교회는 편안했고, 즐거웠고, 자랑스러웠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생각해 보지 않고, 언젠가 우리는 종로를 떠나 자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며 살 것을 희망하는 것은 행복하기만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자연 예배는 즐거운 소풍이었다. 돈 한 푼 없이 교회터를 구한다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일도 즐거움이었다. 그러다 포천으로 들어오고, 우리 키보다도 작은 나무들을 보며 깔깔대며 웃었고, 그 나무들이 커서 지금처럼 울창해지리라 상상도 못하면서 그냥 재밌고 즐거웠다.

그래, 그냥 그렇게 즐겁기만 했던 기억이다. 공동체 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희생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었다. 내가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헌신으로 지켜내야 하는지 생각지 못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아직도 즐기지만 한다. 힘듦과 어려움은 내 일이 아닌 냥.

젊은 그들처럼 좀 더 고민하며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했었다면, 덜 아프며 좀 더 단단하게 밟아올 길이었을 텐데 말이다.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하고, 참 많이 죄송하다.

그루터기사랑방 전경희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524, 419

성 경 : 창세기 28장 10-22절

말 씬 : 약속하시는 하나님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하와이 마우이섬을 위해>
 - 1) 큰 재난으로 몸과 마음이 고통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 2) 아직도 수색 중에 있는 실종자들과 재난현장에 돕는 손길들을 위하여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국공동체협의회>
 - 1) 이번 주에 있는 한마당잔치를 위하여
 - 2)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마음의 준비를 위하여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목~토, 한공협 한마당에 참여하는 분들의 안전과 귀한 시간을 위하여
 - 2) 무더위속에 무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생활공동체 소식 >

8/17-19까지 포항에서 열린 [한공협 한마당 대잔치]에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많이 참석하여 은혜롭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함께 모이는 모임이라 반가움이 더욱 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지만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침저녁부는 바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방학교들도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학 준비로 조용하고 한가로웠던 공동체 마당이 다시 활기차게 될 것 같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